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기간	2019.01.13.~2019.02.02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랑가라 컬리지는 밴쿠버에 위치해있고 단과대학이라 아무래도 저희 학교 보다는 캠퍼스 규모가 작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며 건물들은 굉장히 깔끔해요.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동계라서 수업은 순천향 학생들끼리만 했습니다. 3주짜리 수업 내용이 담긴 링 바인더를 주십니다. 수업은 캐나다 생활, 간단한 회화 등 회화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과제는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인터뷰, activity에 대한 과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간단한 과제나 매 주에 하나씩 간단한 저널쓰기 과제가 있습니다. 10분정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들입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Granville Island, 밴쿠버 박물관, 컬링, 밴쿠버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 다녀왔습니다. 본인이 기념품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딱히 준비물이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활동들을 다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컬링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밴쿠버는 겨울이 우기라 비가 옵니다!! 그리고 대체로 날씨가 흐립니다. ㅌㅌ 되도록 여름에 가는 것이 좋겠지만 겨울에 가게 된다면 무조건 우산 가져가세요! 우비를 챙길 정도는 아니지만 우산이 없으면 많이 불편한 날씨입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길거리에 홈리스들이 많긴 하지만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고 어느 곳을 가든지 똑같겠지만 밤 늦은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홈스테이를 배정받은 동네는 밤에 전혀 위험한 동네가 아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일찍 들어가세요! 밴쿠버는 겨울에는 5시쯤만 되면 해가 집니다ㅌㅌ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제가 배정받은 곳은 학교와 반대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도 동네가 굉장히 깔끔했고 홈맘의 말에 의하면 밴쿠버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치안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홈맘은 딱히 샤워 시간에 대한 규제라던지 생활 규칙을 정해주시지는 않았지만 통금은 밤 10시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까지 밖에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전까지는 들어가게 됩니다. 제 방은 다락방이었고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히터가 빵빵했어요! 사실 반지하 방에 걸릴까봐 추위가 걱정돼서 수면양말을 잔뜩 가져갔는데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홈맘이 런치박스를 준비해주시는데 보통 오늘 저녁이 내일의 점심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초반에는 다양하게 싸주셨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컵라면을 달랑 하나 싸주신다거나 샌드위치 속재료만 달랑 만들어두시고 출근하셔서 제가 빵을 챙겨가야 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건 아무래도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한다면 제가 요구사항에 썼던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 지원서에 저는 어린아이와 시끄러운 집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썼었는데, 저희집에는 17, 19살 여자아이들이 살고있었고 다들 바빠서 집도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서를 쓸때는 꼭 사실대로 쓰세요!!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주로 저녁을 홈스테이에서 해결했습니다. 딱히 사먹고 싶은 음식도 없었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홈맘과 저녁 준비를 같이 하며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밖에서 사먹기도 했는데 한국 식당보다는 비쌌습니다. 음식값에 세금과 팁이 붙기 때문에 한끼값이 만원을 훌쩍 넘깁니다. 그래서 저는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저는 학교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다 이용해 30분정도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교통카드를 주기 때문에 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대중교통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스카이 트레인은 한국의 지하철보다 훨씬 노선이 짧고 간단합니다. 시내버스는 한국 버스와 내리는 방법만 조금 다르고 똑같아요. 하지만 이런건 입국하는 날에 학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595,900 + 24,600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쇼핑+외식	약 760,000	출국 전 900달러 환전
합계	2,380,5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유심칩을 사거나 로밍은 꼭 해가지고 가세요~ 길거리에서 구글맵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별로 춥지 않아서 롱패딩까지는 필요 없는 날씨예요. 안에 두둑히 입고 코트 입어도 안추울 날씨. 굳이 두꺼운 옷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홈스테이 선물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다이소에서 마스크팩이랑 한국 자석, 과자 같은거 사다드렸는데 과자는 잘 안드셨지만 다른건 좋아하셨어요! 참고하세요 ㅎㅎ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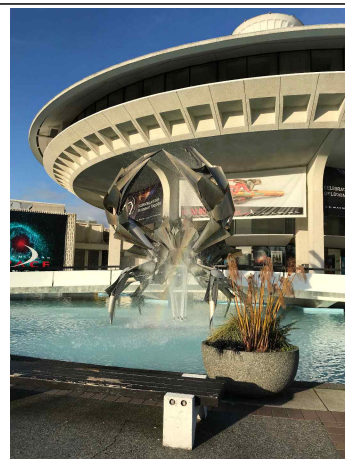
-너무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수업의 난이도는 너무 낮아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영어로만 이야기 하다 보니 회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는 영어보다 홈스테이 식구들과 나누는 대화 시간이 더 많았어서 현지인과 같이 생활하며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하는게 이런 느낌이거나 를 체험해 볼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에도 모든 과정을 영어로 해야 한다는 점이 두렵기도 했지만 적응이 된 후에는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짧았던 3주라는 시간이었지만 현지인의 생활 모습이나 다른 사고방식, 홈스테이 가족들의 또 다른 가족들과의 만남, 그 가족들에게 한국의 대표가 되어 한국의 생활 양식이나 역사를 소개했던 점 들은 저로서는 굉장히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갈 수 있다면 정말 다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그랜빌 아일랜드



밴쿠버 아쿠아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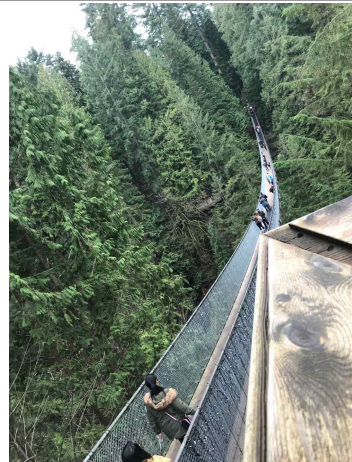
컬링



빅토리아



밴쿠버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브릿지